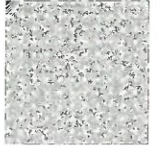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421호 2022년 11월 13일(다해)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빅코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 송 |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제1독서 | 말라 3,19-20ㄴ

화답 송 | 시편 98(97),5-6.7-8.9(© 9 참조)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
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
들. 강들은 손뼉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

○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
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2테살 3,7-12

복음환호송 | 루카 21,28 참조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복 음 | 루카 21,5-19

영성체송 |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
리이다.



김동호 바오로 신부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회장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남성 그룹 지오디(god)의 가요 〈어머님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절의 체험은 제가 사제이자 사회복지사가 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한 역량을 키우라는 주님 부르심에 이끌려, 사제이자 사회복지사, 또 교구 사회사목국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Caritas Seoul)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굳게 믿고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사회복지’란 개인이 스스로나 가족의 힘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사회가 나서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사회복지 활동은 종교적 가르침에 부합하여 참된 종교는 빈민, 병자, 고아, 과부 등 자립능력이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가톨릭의 사회복지의는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속박하는 부조리한 사회구조를 정의롭게 만드는데 헌신합니다. 그 활동을 통한 사랑, 정의의 실천은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것에서부터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회 환경의 개혁까지 아우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7년부터 매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가난’이라고 한 교황님은 이날 교회 전체와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을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는, 기도 중심의 연대·형제애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복음(루카 21,5-19) 속 예수님은 아름다운 돌, 자원 예물로 꾸며진 성전도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인데, 아무리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박해, 무서운 일이 발생할지언정, 인내하며 당신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면서 자신을 잃지 말고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교회 본연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가톨릭교회를 이루는 우리부터 기꺼이 고통받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우선적인 관심과 도움을 투철히 전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됩시다.

모든 인간은 주 하느님의 자녀로서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외면할 수 없기에, 지금 여기에서 주님 사랑의 기적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빈센트 성인의 말씀을 끝으로 글을 마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꿈베마요, 페루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2테살 3,8)

안데스의 농부가 귀리를 수확합니다. 거친 땅이지만, 사람도 가축도 충분히 먹을 만큼의 양식은 거둘 수 있습니다. 기계도 들어올 수 없는 가파른 땅에서 농부는 곡식 한 톨도 축복이라 여기며 정성껏 거두어들입니다. 땀 흘려 거둔 양식을 가축과 나누어 먹으며, 농부는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지요. 때를 알고, 나누는 기쁨을 아는 이, 진정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장은미 베르나디아 | 가톨릭사진가회





가치 있는 삶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많은 '질문'입니다. 행사를 의뢰한 고객, 기업을 향한 세세하고 꼼꼼한 질문들은 완벽한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다시 확인하는 모든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때 좋은 행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타인에게 많은 질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어느 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로 기억됩니다. 바로, '서울대교구 사제 서품식'의 연출과 운영을 맡게 된 것이지요. 감사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 있는 서울대교구의 사제 서품식을 진행하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영광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교구 각 본당에서 신자들만 6, 7천명이 오는 대규모 행사였기 때문에 무대, 스크린, 음향 등을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사제 서품식에 임하는 수품 후보자들의 작은 동선 하나도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된 리허설을 통해서 안정적인 진행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이전 사제 서품식과 다른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무대에 커다란 성화를 설치하곤 했는데, 당시 서울대교구의 성소국장이셨던 고찬근 루카 신부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사제 서품식 최초로 '영상'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제 서품식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영상을 위해 전문 스태프들과 함께 오랫동안 연구했고, 여러 차례 시연을 거쳐 마침내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영상을 통해 순명의 길을 걸어가는 수품 후보자들의 거룩한 결심과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빛을 발하는 사제 서품식이 되기

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부터 10여 년간 사제 서품식을 진행하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느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은 수품 후보자들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것이죠. 하느님의 영롱한 부르심에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새 사제들의 모습은 '순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위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을까요? 바쁘게만 살던 저 역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그 질문 앞에 섭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느님께 반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가는 날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용배 사도요한
가톨릭 스카우트 부연맹장, 팬커뮤니케이션 글로벌 대표

한컷 묵상

너희는 인내로써
자녀의 영을 얻어라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38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설립하셨습니다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그리스도교 핵심은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복음’(福音)이라 하고, 복음을 기록한 책들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핵심 메시지(=케리그마 Kerygma)는 ‘하느님 나라 선포’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이 통치하고 중심인 나라, 모든 것이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완전한 구원이 실현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복음 선포의 핵심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전체를 걸쳐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과 삶과 행적은 하느님 나라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행하신 치유, 구마,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밥을 드신 것, 기적을 행하신 것 등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말씀과 행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곧’ 올 거라 말씀하셨습니다.(마르 9,1 참조) 하지만 예수님 살아생전은 물론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아직 재림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선택을 받고 계약을 맺은 백성이었지만, 계약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계약의 실현과 완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의도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설립하셨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많은 제자 중에 열둘을 ‘사도’로 불러 세우셨습니다.(마태 10,1-4; 마르 3,13-16; 루카 6,12-16 참조) ‘12’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의 4성조(聖祖)인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요셉 중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 12명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유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해 사도로 삼은 이유는 12지파로 표상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 하느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와 교회는 이유와 목적이 동일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직접 교회 설립을 약속하셨습니다. 열두 사도 중 으뜸인 베드로에게 교회 설립을 약속하시고, 교회를 맡기십니다.(마태 16,15-19; 루카 22,31-32 참조) 셋째, 제자들의 ‘파견’(Missio)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파견하셨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파견하셨으며, 성자는 제자들을 파견하셨습니다. ‘파견’이란 파견하신 분의 뜻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유는 하느님 백성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백성에 비해 신약의 백성에게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약의 주체이신 하느님 이시자,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설립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사, 즉 교회가 먼저 구원의 대상이 되고, 이후 교회는 세상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의 전사 엘리아 예언자도 조울증에 시달렸다?



허명엽 마티아 신부 |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원장

엘리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예언자 중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바른말 잘하는 예언자 엘리아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제벨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날 엘리아가 아합 왕에게 예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 예언 직후, 엘리아에게 요르단강 동편의 개울에서 칩거하라고 명하시고, 음식은 까마귀들이 날라다 주게 하셨습니다. 그후 실제로 가뭄 때문에 개울물이 말라버려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기도예 전념하던 엘리아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행동에 나섭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카르멜산 위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과 그의 한판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는 온 백성을 카르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함께 모이게 했습니다. 엘리아는 하느님과 바알 중 누가 진짜 하느님인가를 보여주는 싸움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혼자인데, 바알의 예언자 무리만 무려 450명이나 되었습니다. 엘리아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황소 두 마리를 끌어오시오. 한 마리씩 잡아 장작에 불을 붙이지 말고 나는 하느님께, 당신네 예언자들은 바알 신을 불러 불이 붙는 쪽이 이기는 것이요. 어떻소?”

싸움이 시작되자 엘리아는 두 번씩이나 불을 내려 바

알의 예언자들을 완패시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아합은 아내 이제벨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벨은 사람을 엘리아에게 보내 저주의 말을 전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대의 목숨을 그들의 목숨과 한가지로 만들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엘리아는 두려운 나머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는 싸리나무 아래로 들어가 주저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카르멜산에서 보여줬던 용맹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엘리아는 주님께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까지 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한번에 무너졌을까요? 이 부분은 그의 성격이나 심리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상반된 두 행동은 ‘조울증’의 증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처럼 엘리아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에서 완전히 밑바닥에 부딪히는 상태까지 추락했습니다. 동시에 좌절감, 두려움, 절망감,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엘리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용감하게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나약한 한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우리와 같이 흠 많고 죄 많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체험하며 계속 회개하여 그분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엘가(1857-1934)
사진출처: 위키미디어



앞서간 영혼을 위로하고 싶을 때,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로드(Nimrod)'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지난 달 이태원 참사의 안타깝고 비통한 죽음을 애도할 때, 방송에서 많은 추모곡이 흘렀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 9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 시, 잉글리쉬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공식 유튜브 계정에 여왕을 추모하며 올린 음악도 있었죠. 에드워드 엘가(Sir E. W. Elgar, 1857~1934, 영국)의 <수수께끼 변주곡(Enigma Variations)> 가운데 '님로드(Nimrod)'입니다. 이 곡은 종종 추모용 음악으로 선택됩니다.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라는 가사를 붙여 성악곡으로 편곡해 부르기도 하죠. 아다지오(adagio)로 느리게 연주되는 '님로드'의 아름다운 선율이 듣는 이를 자못 슬프고 경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곡이 애초에 추도용으로 작곡된 것은 아닙니다. 1898년 어느 날, 엘가가 별생각 없이 피아노 즉흥 연주를 하고 있을 때, 그의 부인이 이를 듣고 멜로디가 좋다면서 더 연주해보라고 하죠. 평소 엘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던 아내의 말에 힘입어 엘가는 이 곡을 여러 변주로 확장시켜 연주해봅니다. 그리고 이듬해 '주제와 열네 개의 변주곡'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관현악 작품으로 발표하죠. <수수께끼 변주곡>의 탄생입니다. 왜 '수수께끼'라는 제목이 붙었을까요? 이는 엘가의 유머감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곡의 변주곡 하나하나에는 첫 글자만 표기한 이름, 또는 누군가를 연상할만한 단어들이 소제목처럼 쓰여 있는데, 이를테면 제1변주에는 엘가의 부인, 캐롤라인 앨리스 엘가 이름의 약자 'C.A.E.', 마지막 제14변주에는 아내가 엘가를 부르는 말 'E.D.U.'가 쓰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변주들도 음악가, 출판업자, 배우, 건축가 등 모두 엘가 부부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묘사해놓고 알쏭달쏭한 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변주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아맞히는 것이 하나의 수수께끼이고, 또 하나의 수수께끼는 엘가가 이 곡 안에 숨겨놓은 '더 큰 주제'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가는 이 주제를 잘 알려진 선율이라고만 하고 수수께끼로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가 주변인과 학자들이 추정하는 곡이 여럿 있지만 정답을 말해줄 사람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엘가뿐입니다.

<수수께끼 변주곡>의 제9변주 '님로드(Nimrod)'는 엘가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베토벤의 정신을 상기하라며 격려해준 출판업자 아우구스트 예거(A. J. Jaeger)와의 우정을 그린 곡인데, 님로드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니므롯'을 말합니다. 노아의 증손자인 니므롯은 성경에 '장사'이며 '용맹한 사냥꾼'이라고 쓰여 있죠 (창세 10,8-9). 독일 출신인 예거의 성(姓)이 독일어로 '사냥꾼(Jäger)'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냥꾼으로 나오는 니므롯(님로드)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독일어도 알고 성경 내용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지적인 수수께끼지요. 이 곡의 제목에서는 이렇듯 재치가 엿보이지만 듣기에는 경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로하는 11월 '위령성월'에 딱 맞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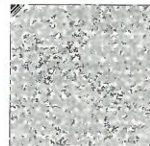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로드'
잉글리쉬 심포니 오케스트라

룩스 에테르나(Lux Aeterna '님로드'의 성악곡 편곡)
보체스에이트(Voces8)



엘가 <수수께끼 변주곡> 전곡(全曲)
에이드리언 볼트(지휘), 런던 교향악단



장미창, 영원한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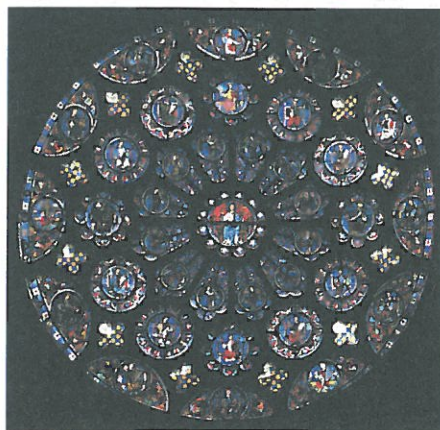


김광현 안드레아 |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고딕 대성당에는 정면인 서쪽, 교차부의 남쪽과 북쪽 등 세 개의 포털 위에 원형의 창이 크게 뚫려 있습니다. 이를 장미창(rose window)이라고 합니다. 밖에서 보면 돌로 섬세하게 세공한 패턴만 보이지만, 약간 어두운 성당 안에 들어서면 하늘을 향하는 높은 공간을 멈추게 하려는 듯, 자기 완결적인 원의 형태를 통하여 신비한 빛이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미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로사리오 기도의 장미가 지혜의 꽃이며 거룩하신 성모님의 상징이므로, 이 둥근 창을 장미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미라는 말에서 성모님을 연상하여 이 창이 성모님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장미창은 성모님을 상징하는 창이 아닙니다. 장미창은 ‘차륜창(車輪窓, wheel window)’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이름은 모두 꽃잎 또는 바퀴살처럼 중심에서 방사되는 일련의 작은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충분한 설명이 못 됩니다.

고딕 대성당의 장미창은 구약성경의 예언자 예제키엘이 본 구세주의 비전과 일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생물들 옆 땅바닥에는 네 얼굴에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습과 생김새는 빛나는 녹주석 같은데, 네트의 형상이 모두 같았으며, 그 모습과 생김새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 있는 것 같았다.”(에제 1, 15-16) “바퀴 안에 또 바퀴”는 ‘차륜창’에서 빛나는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향한 모든 빛의 근원이심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장미창은 예제키엘의 환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8, 12)라고 한 말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샤르트르대성당 남쪽 장미창 1225-1230년, 프랑스

샤르트르대성당에는 세 개의 포털 위에 각각 세 개의 장미창이 있습니다. 북쪽 장미창은 그리스도인 아기 예수를, 남쪽 장미창은 부활하신 예수를, 서쪽 장미창은 심판자 예수를 나타냅니다. 이렇듯 북쪽 횡랑의 장미창(1235년 제작)은 구약을 형상화했습니다. 중심의 오쿨루스(oculus)는 성모와 어린 예수를 나타내며, 열두 개의 꽃잎 모양의 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쪽 횡랑(1225~1230년 제작) 장미창의 중심에서는 새로운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들어 강복하시고 찬미하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십니다. 한편 정면 입구 위에 있는 장미창(1215년 제작)의 중심은 요한묵시록에 기록된 심판자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세 개의 장미창은 영원하신 진리이자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이 세 개의 장미창은 영광송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처럼, 과거(처음과 같이), 구약(이제와), 신약(아멘)과 미래(항상 영원히), 창자 오실 심판이라는 세 가지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하여 성당은 세 개의 시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당 안에 있는 우리는 세 개의 시간이 합쳐진 영원한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성인 유해 관련 주교회의 총회 논의 결과

주교회의의 2022년 추계 정기총회는 16개 교구에 안치되어 있는 성인 유해 현황 자료와 성인 유해와 관련된 회의들의 논의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성인 유해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되 교구에 신고하고, 개인이 더 이상 보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다른 곳에 전달하지 말고 반드시 교구에 인계하도록 한다.

103위 성인명의 우리말 표기 관련 주교회의 총회 논의 결과

- ① 『천주교 용어집』(개정 증보판)에 나와 있는 대로 한국 103위 성인명 표기를 통일한다.
- ② 외국 성인의 경우에는 『천주교 용어집』의 한글 표기와 '원어명의 한글 표기 병기'(예를 들어, 범 라우렌시오 '앵베르 라우렌시오')를 허용한다.

‘서울성심간병인회’ 인준 취소 안내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인준심사위원회는 ‘서울성심간병인회’가 평신도 (사립)단체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교회법 제326조 제1항’ 및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서울성심간병인회’의 인준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대교구 협력사목 TF’ 신설 및 위원 임명

위원장	김종욱 신부	중서울지역 지구장
	이대영 신부	중서울지역 주임
	하형민 신부	동서울지역 지구장
	송재영 신부	동서울지역 주임
위원	박규흠 신부	서서울지역 지구장
	이용희 신부	서서울지역 주임
	권혁준 신부	부주임 대표
	정영진 신부	사무처장
	조성풍 신부	사목국장
	양주열 신부	통합사목연구소장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27년 11월 19일 손성재 야고보 신부(50세)
- 1987년 11월 14일 조인환 베드로 신부(74세)
- 2002년 11월 16일 박병윤 토마스 신부(75세)
- 2016년 11월 20일 김대군 파트리치오 신부(77세)
- 2019년 11월 17일 오기오 요한크리스토포스 신부(68세)
- 2019년 11월 18일 박성구 요셉 신부(70세)

서울주보 게재 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교구정일령

사복시상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김한여 베드로’
 때: 매월 셋째주(화) 11월15일 오전 10시(180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용문청소년수련장 이용 안내

3만 평 숲 속 넓은 잔디 운동장, 잣나무 그늘, 메타세콰이어 사이길 / 문의: 031)774-3587
 본당 야유회, 연수, 꾸리아 야외 행사, 피정 등 가능, 각 단체나 반원 등 소규모 인원의 당일 피정·숙박 피정 형식기도 피정: 11월18일~20일, 12월9일~11일

‘슬픔 속 희망 찾기’ 자살예방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채

대상: 자살예방에 관심있는 사람들 누구나(9가족 포함)
 때, 곳: 11월19일(토) 10시(미사), 11시(토크 콘서트), 12시~17시(마음축제) / 집전: 유경춘 주교
 곳: 명동대성당 지하 1898광장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022년도 명동대성당 대림 특강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이 대림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때, 곳: 매주(월) 19시~20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11월28일(월)	구요비 주교
12월5일(월)	유경춘 주교
12월12일(월)	손희송 주교
12월19일(월)	정순택 대주교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내일생의 치유 피정’

때, 곳: 12월2일~4일(2박3일), 아론의 집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2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2023년 1월27일~2월4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허규 신부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데레사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경자 도예전: 1전시실
 서범수, 염소영 2인전: 2전시실
 전시일정: 11월16일(수)~21일(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정기 세미나 개최

주제: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루카 1,39 참조)-시노달리타스와 교회 여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때: 11월22일(화) 14시~17시 / 문의: 02)460-7641
 곳: 서울대교구청 5층 501호실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11월1일(화)~25일(금) / 3개월 수업(12월~2023년 2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겨울학기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블	그레고리오성가(남·여)·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11월14일(월) 10시30분, 길음동성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2022년 정기 세미나

주제: 노년과 생명 / 문의: 02)460-7623
 때, 곳: 11월19일(토) 14시, 수원교구 제2대리구청 대강당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참조

민족화해위원회

-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날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44차 미사 11월1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신의주 본당, 마전동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 2) 2022 한반도 평화나눔포럼 / 문의: 02)753-0815
 주제: 한반도 화해를 위한 가톨릭의 평화 인식과 역할
 때, 곳: 11월26일(토) 10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진리관(해화동)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1) 2022년 영성심리상담가데미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예약): 02)727-2126(tcpc@seoul.catholic.kr)
-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일람

모임

4지구(종로·성북) 성령기도회

미사·강의: 구본영 신부 / 문의: 010-3321-1863
 때, 곳: 매월 셋째주(금) 11월18일 13시~16시, 길음동성당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번 기도회

때: 11월28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성모송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12월17일(토), 나바위 성지 외(전주교구)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 사전접수 필수

송년 감사 피정 / 문의: 010-9816-0072

대상: 길을 찾는 35세 미만 미혼 여성
 때: 12월31일(토)~2023년 1월1일(일) / 회비: 2만원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본원(서울)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2월16일~19일·2023년 1월6일~9일·1월27일~30일·2월3일~6일·2월24일~27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용)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루하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새신봉사회)

찬양을 통한 치유회복기도회에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새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11월21일~23일·11월26일~28일·12월2일~4일·12월16일~18일·12월31일~2023년 1월2일(한라산 눈꽃 피정)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성모신심 피정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1) 성모님께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Zoom 화상모임)
 때, 곳: 12월8일~2023년 1월12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Zoom 화상모임

2) 성모신심 피정

때: 11월22일(화) 9시30분~낮 12시 / 미사와 강의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이종남 신부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대침목 피정	11월25일~27일(2박3일)	명상의 집 (우이동)
집단 성리성당 피정	11월21일, 12월19일	
개인 피정·위탁 피정	별도 문의	

제주 먼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12월3일~5일·12월9일~11일·2023년 1월5일~7일, 연말연시 피정 12월30일~1월2일(눈꽃산행)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교육

수제 목주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미사반주를 위한 오르간 교육(대치2동 오르간아카데미)

곳: 대치2동성당 / 문의: 010-9468-7660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돈보스코미디어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 고등과정(17세~24세) / 문의: 02)833-0930
 검정고시반, 독서, 사회, 영어, 체육, 미디어, 제과제빵, 미술, 사진 / 남자기숙사 운영
 곳: 돈보스코 미디어스쿨(양천구 신월3동)
 홈페이지: http://db-mediashool.kr

인천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교육

열수(월·수) 쉬은 맥성경: 1년 동안 신구약 성경의 맥을 쉽고 재미있게 살펴보는 무료 교육 과정입니다
 곳: 지혜의샘(부천시 송내동 366-5)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월)	오전 구약 1강의, 오후 구약 2강의
(수)	오전 신약 1강의, 오후 신약 2강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이콘 교실(입문반)

강사: 오승민 수사(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김경미
 때: 12월6일(화)~9일(금) 개강(12회 강좌)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인원: 각 반별 0명
 회비: 38만원(교재, 이콘판, 개인붓 별도)
 문의(접수): 02)6364-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사무실

(화)	오후반 14시~17시	(금)	오전반 10시~13시
(수)	오전반 10시~13시, 저녁반 18시30분~21시30분		
(목)	오전반 10시~13시, 오후반 14시~17시		

제21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3주)	미국 1A 영어캠프(3일 1일 기숙사),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라스베이거스와 그랜드캐년,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등 명문대 재학생 간담회
사이판 (4주)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2~3일 1일 리조트) 명문대 선배생 수학수업, 다양한 액티비티와 현지 투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3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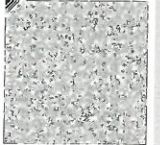
2차 전형 원서접수: 11월14일(월)~24일(목)~전형일 12월10일(토) / 문의: 02)705-8668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
석·박사통합	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 문의: 010-9842-8818
 곳: 시스파니움악원(주최, 신촌)



어르신 선종 교육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때: 11월22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성바오로수도회 성경 강의

때: 매주(화) 10시~12시30분 / 사도행전
 곳: 성바오로 북카페레벤(논현) / 회비 없음
 문의: 010-9333-6260 양은철 신부

2023년 인천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모집

접수: 11월14일(월)~24일(목) / 모집학과: 조형예술학과, 그리스도교미술학과, 디자인콘텐츠학과, 간호학과
 문의: 032)830-7022 송도국제캠퍼스

2023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원서접수: 11월14일(월)~2023년 2월10일(금)
 우편접수 가능 / 문의: 02)745-8339

모집

예수고난회 재속3회원(동반자회) 모집

대상: 60세 이하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접수: 11월30일까지 / 문의: 010-2657-0951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문의: 010-5759-4861

오디션: 11월19일 13시 /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1곡
 명동대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 공지 참조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을
 적 삶을 살아가는 남녀 평신도 / 11월30일까지 접수
 문의: 010-6449-8250, 010-9572-8282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첫영성체 받은(2023년 예정인) 초2~초6 가톨릭 신자
 오디션: 11월26일(토) 14시30분,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 문의: 010-2650-8014
 11월24일(목)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11월17일(목) 12시, 가톨릭회관 3층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지도: 신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때, 곳: 11월14일(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글라셋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11월21일(월) 11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령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11월25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성시간, 목주기도, 미사 / 접수 필수
때, 곳: 11월18일(금) 10시~13시, 가톨릭회관 102호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12월 가정선교회 행사
미사와 식수 준비, 방역수칙 준수 / 문의: 010-6281-8626, 010-5674-8511, 010-2367-2297, 02)777-1773

토요 피정과 성모산심 첫미사	12월3일(토)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박재찬 신부, 하성용 신부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12월7일(수) 14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이상재 신부, 이현주 회장

인사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예약): 010-3173-266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국내임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인천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교육 및 피정
청소년·청년·예비자·성인 위탁 및 자체 교육·
피정 / 문의(접수): 032)465-0835
침묵·대월 기도 피정: 12월9일~18일·12월23일~25일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트 순교성지, 서릿길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기도패 신청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 봉헌(명절·위령의날), 매월 1회 추모와 축복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청소년 언어·매체상담·종합심리검사(서울시립 청소년드림센터) / 문의: 02)2051-3743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곳: 천주교 살레시오 수도회(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매체상담 회당 3만원·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무료)

여성 전화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대면 상담	내적성장, 대인갈등 / 문의: 02)990-9360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eon.or.kr

나의 인생이야기-전생애 발달심리학 의 이해와 중년기(과거·현재·미래)	11월18일~12월16일 매주(금) 10시~12시(5주)
전문 심리상담	정서불안, 우울, 분노, 의사소통의 어려움(부부·가족·개인)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여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문의: 010-9146-7654(www.dstcoun.net)

직원모집

장애인가주시설 H2빌 조리원 모집 / 문의: 02)6925-2366
교대 근무 / 강서구 개화동(전철 5호선 방화역 도보 10분)

가톨릭신문사 신입직원 모집
분야: 취재기자, 영상기자, 광고홍보사원
접수: 11월30일(수)까지
홈페이지(www.catholictimes.org) 참조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정규직 직원 모집
분야: 법인사무국 담당자, 총무팀원, 사회복지사(분야별 각 1명) / 채용시까지 접수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의정부교구 행신1동성당 관리장 모집
분야: 관리장 1명(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임용 가능)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자격증 사본(소방·가스안전 및 기타자격증 우대) / 채용시까지 접수(본당 홈페이지 참조)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직원 모집
업무: 후원회원 관리 및 회계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11월23일까지 이메일(johnofgod.kr@naver.com) 접수

역삼동성당 방호원(시설관리) 모집 / 문의: 02)553-0801
대상: 성실하신 교우 / 업무: 시설관리 및 방호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1월20일까지 방문·우편(우 06222,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85길 23-11) 및 이메일(yscatholic@naver.com)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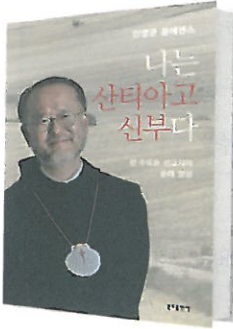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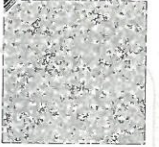
명일동성당 관리인 모집
분야: 관리인 1명(계약직) / 문의: 02)481-021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시설물 관리, 미화, 기타 방호 업무 가능하신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1월20일까지 방문·우편(우 05235,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28) 및 이메일(belle14@seoul.catholic.kr) 접수

문정2동성당 방호원 모집 / 문의: 02)408-0179
분야: 계약직 1명 / 업무: 시설관리, 유지, 방호 등 관리업무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연락) /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5833,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7길 34 문정2동성당) 및 이메일(rgkim@seoul.catholic.kr) 접수

성 앵베르 센터(진관동)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주말 근무 가능한 분 / 업무: 피정 준비 및 사무행정 업무
분야: 교구사무원 1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문의: 02)2280-1784
채용시까지 이메일(imbert@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139나길 16-8)	010-3012-2616 조 신부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2042-8353 심재현 신부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11월20일(일) 13시30분~17시	본원(미아리)	010-9816-0072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1월19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나는
산티아고 신부다

인영균 지음
본도출판사 | 256쪽 | 1만9천8백원
문의: 02)2266-3605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인영균 신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에 위치한 수도원에서 봉사하면서 겪은 일들과 만난 사람들에 관한 소회를 담았다. 우리가 몰랐던 산티아고 순례길의 역사와 그 길에 담긴 영성 또한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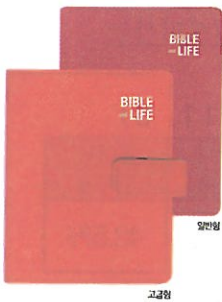
신간

대림 달력



생활성서사
4쪽 | 1천원
문의: 02)945-5987

『대림 시기, 예수님을 기다려요』에 수록된 『대림 달력』을 별도의 제품으로 출시했다. 아이들에게 대림 시기의 정의와 대림 시기를 보내는 자세에 대해 소개하며, 동시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하고, 성탄을 더욱더 기쁘고 뜻깊게 맞이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간

Bible & Life
2023 다이어리

생활성서사
256쪽 | 1만3천원
문의: 02)945-5987

2023년에도 어디든 갖고 다니며 스케줄을 작성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해 줄 '2023 Bible & Life 다이어리'는 전례력에 따른 '월간 달력'이다. 신앙 생활과 스케줄을 계획하면서 동시에 '성경 읽기표'를 따라 계획적으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말씀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이끌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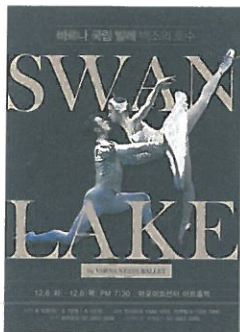


신간

산타들

방종우 글 | HYUNHO 그림
성바오로출판사(레벤북스) | 80쪽 | 1만4천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찾아올 즈음, 아이들은 머리맡에 양말을 걸어놓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렸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하지만 세상은 아주 많이 달라졌다. 산타들은 자신들을 위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무언가를 시작한다.



공연

바르나 국립 발레
〈백조의 호수〉

입장권: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문의: 02)447-1002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10% 할인

75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바르나 국립 발레단'이 12월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명작 <백조의 호수>로 첫 내한 공연을 한다. 높은 예술적 기량과 완벽한 연기 기술, 댄서들의 깊은 내면까지 담아 표현하는 동작은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동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12월 6일(화)~8일(목) 19시 30분,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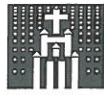
공연

아퀴나스합창단
제82회 정기연주회

전석 초대
일시: 11월 18일(금) 19시30분~21시
장소: 흑석동성당
문의: 010-2778-2704 홍무

창단 55주년을 맞는 아퀴나스합창단(Thomas Aquinas Choir & Ensemble, 담당 사제: 최호영 신부)이 제82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연주곡은 멘델스존의 시편들(시편95: 와서 경배 드리세, 시편115: 오직 주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소서, 시편42: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다.

제2254(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락처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연회동 남자들이여!! 다함께 밥 한끼 먹읍시다.”

일시 : 11월 20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지하식당

준비사항 : 넉넉한 마음과 환한 얼굴

◎ 수험생 축복미사 : 11월 16일(수) 오후 7시

◎ 수험생 부모 하루 피정

일시 : 11월 17일(목) 오전 8시 40분~오후 4시 37분

사전접수 : 중고등부자모회장 (010-3264-7970)

회비 : 일만원

◎ 청년음악회 (Re)

일시 : 11월 19일(토) 오후 6시 / 대성전

구성 : 1부 임마누엘 홀리챔버 합주단 /

2부 한푸름성가대 / 3부 이레밴드

관람 : 누구나 선착순 무료 입장

* 이 날 오후 3시 미사는 지하소성전에서 드립니다.

* 이 날 오후 6시 미사는 없습니다.

◎ 병자영성체 : 11월 25일(금) 10시 미사 후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10월~11월).

성 명	세 례 명	구역/반
박형노	사도요한	2-5
권중혁	대건안드레아	2-5
허주성	안드레아	4-1
조재무	토마스	4-2
정지원	크레센시아나	5-1
곽창순	바오로	6-5
김태연	아네스	7-1
강재균	요한보스코	10-5
유지아	글라라	10-6
정인경	아네스	기타

◎ 전입교우 환영식

일시 : 11월 27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12월 입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은 없습니다.

◎ 평일미사 반주자 모집

봉사시간 : 평일 06시, 10시 미사

문의 : 아네스 대표 (010-4538-5665)

◎ 2023년 각 단체 예산 신청서를 11월 20일(주일)

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신청서는 맑은고딕
서체, 11포인트, 엑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예산 신청서 양식은 연회동성당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료실에 있습니다.

◎ 견진성사 안내

견진성사 : 12월 3일(토) 오후 3시

교리일정 : 11월 1일(화)~11월 29일(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 대성전

대상자 : 세례받은 만 12세 이상 및 교리강의에
참석을 원하는 모든 신자

강사 : 성바오로딸 교리교육팀 수녀님

※참고도서 :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신앙 생활의 핵심’

예절연습 : 11월 29일(화) 마지막 강의 후

※청소년 견진교리는 중고등부 교리시간을 통해
진행됩니다.※견진교리기간동안 화요일 저녁 7시미사는
대성전에서 드립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11. 6)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16	866 (41.0%)	829 (39.2%)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후
2022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장직현일백만원 누 계75,808,300원

◎ 감사헌금 (10월 31일~11월 6일)

의 명일십만원 정수진칠만원

의 명일십만원 허주성일십만원

노연숙오만원 이영자칠만원

성지호오만원 박재범오만원

박옥순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32주일)

교무금17,700,000원

주일헌금4,956,000원

평신도주일 2차헌금1,862,000원

입당	44	봉헌	511, 210	성체	180, 151	파견	68
----	----	----	----------	----	----------	----	----



백성들을 울바르게 다스리 - 러 주님이 오신다